

# OTT 전성시대... 골라 보는 재미가 '쏠쏠'

넷플릭스, Apple TV+, 디즈니+, 왓챠, 웨이브, 티빙...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오징어게임', '지옥' 등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TT(over the top)는 미디어 콘텐츠를 본방 시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Apple TV+, 디즈니+까지 합류하면서 OTT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OTT 전성시대, 어떤 OTT를 선택해야 할지 살펴보자.



###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 이용 기존 넷플릭스·왓챠 등에 애플TV+·디즈니+ 합류 경쟁 치열

#### ◇넷플릭스

국내 OTT 이용자 중 절반 정도가 가입한 넷플릭스는 OTT계 선두주자다. 넷플릭스는 30여 개 언어로 190개 국가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강점이다. 인기 콘텐츠로는 최근 전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게임', '지옥'을 비롯해 '킹덤', '보건의사 안은영', '스위트 홈', '마이 네임', '종이의 집', '엘리트들' 등이 있다. 모든 콘텐츠에서 모든 언어로 자막을 지원하며 각 국가별로 가장 많이 시청한 'TOP10 콘텐츠'와 '지금 뜨는 콘텐츠', '신규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추천해준다. 월 이용료는 베이직 9500원, 스탠다드 1만2000원, 프리미엄 1만4500원이다.

#### ◇왓챠

해의 명작 드라마를 모아놓은 '왓챠 익스클루시브'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대항마다. '체르노빌', '킬링 이브', '이이즈 & 이이즈' 등 해외에서 호평 받은 드라마를 단독으로 제공하며, 독립 영화·홍콩 영화나 2000년대 인기 드라마·예능 등 과거 콘텐츠가 핵심이다. 최근에는 '해리포터', '호빗' 시리즈를 서비스하기 시작했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돌입했다.

왓챠의 또 다른 장점은 '왓챠피디아'다. 왓챠피디아는 왓챠와 위키피디아의 합성어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 리뷰, 평점, 그리고 감상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월 이용료는 베이직 7900원, 스탠다드 1만2900원이었다.

#### ◇Apple TV+

Apple TV+는 지난 4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사

의 OTT 플랫폼으로 가장 먼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로 김지운 감독의 'Dr. 브레인'을 공개했다. 작품은 다음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스릴러 드라마로 배우 이선균, 이유영 등이 출연한다. 애플은 앞으로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 소설 '파친코'를 바탕으로 한 동명의 시리즈를 비롯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하는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 프랜시스 맥도먼드 주연의 '맥 베스의 비극'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독료는 월 6500원. 누구나 7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 디바이스를 구입하면 3개월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디즈니+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 디즈니+. 2019년 11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서비스 시작해 문정 20개월만에 1억 1600만 명의 구독자를 돌파한 디즈니+는 독보적인 스토리텔링과 넓은 고객층으로 넷플릭스를 대적할 OTT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디즈니는 월트 디즈니부터 시작해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을 만들어 낸 콘텐츠 기반 기업이다. 디즈니+는 '겨울왕국' 등 디즈니와 픽사의 인기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마블의 '어벤저스'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라이온 킹', '알라딘', '겨울왕국' 등을 보유하고 있어 콘텐츠 양에서 다른 플랫폼을 압도한다. 구독료도 월 9900원·연 9만 9000원으로 다른 OTT보다 저렴한 편이다.

#### ◇웨이브

웨이브는 지상파 3사의 폭(POOQ)과 SK텔레콤의 옥수수

(Oksusu)가 합쳐져 탄생한 국내 OTT 서비스다. 방송 VOD만 30만편, 영화 2만편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MBC '놀면 뭐하니', SBS '런닝맨', KBS2 '1박2일'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과 방송 중인 지상파 드라마가 오리지널 콘텐츠이자 경쟁력이다. 현재 '핀대인턴', '검은태양' 등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넷플릭스·왓챠에 이어 OTT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용권은 베이직 7900원, 스탠다드 1만9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 등이었다.

#### ◇티빙

tvN, OCN, Mnet 등을 보유한 CJ ENM에 JTBC가 합류해 CJ ENM 계열과 JTBC 계열 방송이 핵심 콘텐츠다. 이외에도 EBS·YTN·연합뉴스 등 다양한 방송도 스트리밍 가능해 총 38개 채널을 제공한다. '유 퀴즈 온 더 블럭', '신서유기',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 등의 대표 예능부터 '철인왕후', '허쉬' 등 인기 드라마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유미의 세포들', '이태원 클라쓰', '여신강림' 등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눈길을 끈다. 구독료는 베이직 1만2000원, 스탠다드 1만6000원, 프리미엄은 2만원이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적요’

## 임남진 작가, 수원서 초대전

### 12월3일까지 헤럴드아트데이 광고센터

한국화가 임남진 작가 초대전이 수원에서 열린다. 헤럴드아트데이는 임남진 작가 초대전 'Still Life 스틸 라이프'를 오는 12월 3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헤럴드아트데이 광고센터에서 개최한다. 회화를 중심으로 꾸며지는 이번 전시는 불교 행화를 모티브로 하는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5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임 작가의 작품 세계의 변화를 면밀히 조명한다.

2007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작가는 작화와 조각, 불안한 절망의 시기를 지나며 작업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불화, 풍속도 등의 형식을 빌려 현대의 면면을 드러내고 때로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도 담아내던 작품은 점차 자연이라는 근원적 세계로 그 초점을 옮겨갔다.

그의 근작은 시대의 군상을 넘어 일상의 풍경을 응시한다. 적막한 푸른 빛으로 뒤덮인 하늘, 가늘고 짙긴 거미줄, 얇은 낫달 등의 풍경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임 작가는 몸과 마음의 눈길을 따라 '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한다.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삶을 관조하는 시선은 점, 선, 면, 색(色)의 조형을 통해 삶의 구석구석을 은유하고 상징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폭을 넓혔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임 작가는 제19회 광주미술상, 원진미술대상 특별상, 하정웅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지역 패션 본능 '일상의 전환'

### '2021 광주패션위크' 29~30일 온·오프라인 진행

'지역 패션의 본능을 깨우다'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진디자이너들의 브랜드를 알리고 인큐베이팅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로컬프로젝트인 '광주패션위크'가 올해 2회를 맞았다.

'2021 광주패션위크'는 광주패션위크조직위원회의 주최로 오는 29~30일 양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역기반 k-패션과 k-뷰티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뷰티·패션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일상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광주패션위크에는 노

블리즈뷰티학원과 커스텀엔터테인먼트, 커스텀모델센터 등이 참여해 신진디자이너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세속을 벗어난 실험적인 미학을 바탕으로 삶의 본질과 일상의 다양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9일 오후 2시 전국대학학생패션연합회(OFF) 광주지부 런웨이 시작으로 오후 5시 산점, 8시 리프로젝트, 30일 오후 2시 블라썸턴, 5시 리라이트의 패션쇼가 진행되며, 모든 브랜드 패션쇼는 '광주패션의극'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 있다.

문의 062-222-4844.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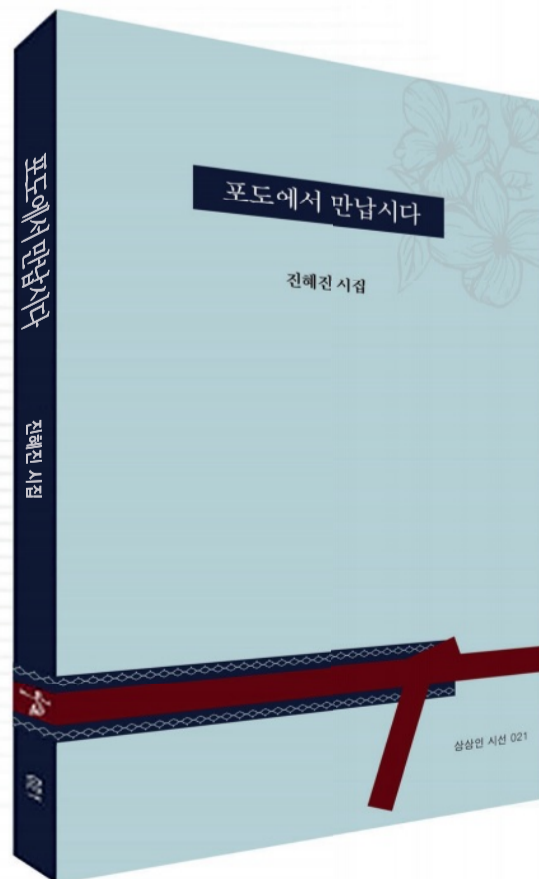
### 전남대 도서관, 독서후기 공모전

'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 올해의 한 책인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독서후기 공모전이 진행된다.

전남대 도서관(관장 장우권)은 오는 15일까지 독서후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재학생과 시민인 각 6작품씩을 선정해 상금과 사은품을 증정한다.

광주·전남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전남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 도서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530-353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 진혜진 시인 첫 시집

## 포도에서 만남시다

####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